

‘퍼플섬’ 신안군 반월·박지도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신안 퍼플섬이 유엔이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다. 지난 10월 아스타국화가 만개한 박지도에서 바라본 퍼플섬과 반월도.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보랏빛 ‘퍼플섬’으로 유명한 신안군 반월·박지도가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가 선정하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

5일 신안군에 따르면 유엔세계관광기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총회를 열고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반월·박지도 선정했다.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홍보, 관광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의 각 마을을 평가해 인증해주는 사업이다.

국제 공모전 형태로 진행된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 사업에는 지구촌 75개국 170개 마을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펼쳤다. 특히 ‘1회’라는 상징성 탓에 대륙별, 국가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세계관광 우수마을’은 모두 3등급으로 나뉘는데 퍼플섬 반

유엔세계관광기구 선정 75개국 170개 마을 경쟁 섬 전체가 보랏빛 물결 지역 관광에 큰 힘 될 듯

월·박지도는 이 가운데 제일 높은 등급인 ‘최우수 관광마을(World Label)’에 선정된 것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에 초대돼 직접 수상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마다 지난 생태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살려 독특한 컬러가 있는 섬을 만들어가고 있는, 4만 신안 군민과 신안군의 노력을 유엔과 전 세계가 인정해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경사”라며 “이 모든 기쁨과 영광을 반월·박지도 주민을 비롯한 신안군민께 바친다”고 밝혔다.

반월·박지도는 섬에 자생하는 도라지 꽃의 보

라색을 콘셉트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퍼플섬으로 조성됐다. 다리·지붕·주민들 옷 등 섬 전체가 보랏빛으로 유명세를 타 CNN과 폭스뉴스 등 세계적 언론을 통해 조명받기도 했다.

퍼플섬의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은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은 물론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관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상을 계기로 퍼플섬을 비롯한 신안의 섬들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신흥 관광 메카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는 1925년의 국제관광연맹(IUOTO)을 개편해 1975년 설립된 국제연합(UN) 전문기구로 관광의 진흥과 개발, 관광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총 155개 회원국과 6개 준회원국, 400여개 지부가 가입돼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학원·영화관·공연장 등 다중시설 방역패스 적용 확대 백화점·마트는 제외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2일까지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은 6명,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된다. 또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타벅스,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따라서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대상 연령이 2003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생 청소년으로 확대된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은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현재 광주의 12~17세 백신 접종률은 33.2%에 머물러 있고, 시민들의 3차 접종률도 8%에 불과하다”면서 “12세 이상 시민 130만명 모두가 백신을 접종하고, 추가 접종도 조기에 완료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새 감독에 ‘원클럽맨’ 김종국

‘원클럽맨’ 김종국(48·사진) 수석코치가 KIA 타이거즈의 지휘봉을 잡는다. <관련 기사 18면> KIA는 5일 “제10대 감독으로 김종국 수석코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계약금 3억원·연봉 2억 5000만원이다. 타이거즈를 잘 아는 인물, 조율하면서 강단 있는 리더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국 선임감독은 광주일고와 고려대를 거쳐 지난 1996년 KIA 전신 해태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었다. 뛰어난 수비로 국가대표 2루수로도 활약한 그는 2009년 베테랑의 카리스마로 ‘V9’을 이끌었다.

2010년 가을 은퇴식을 갖고 현재 생활을 끝낸 그는 이후 작전, 주루 코치 등을 거쳐 올 시즌 중반 수석코치를 맡았다. 2019년 WBSC프리미어12·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표팀 코치로도 활약했다.

KIA는 올 시즌이 끝난 뒤 대표이사, 단장, 감독 ‘동반 교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9위라는 부진한 성적에 팀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원점에서 명거 재건을 위한 판을 짜기로 한 것이다.

전임 대표 체제에서 겸임 체제로 전환해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을 새로운 대표로 선임한 KIA는 구단 실무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장정석 전 키움 감독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보육시설 종료 청소년들 “자립하고 싶어요” ▶6면

옛 소련 한글학교에 핀 ‘광주 온정’ 30년 ▶17면

건축물 열전 - 의정부미술도서관 ▶22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전남지방우정청

본 광고는 우체국 직원들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망글 섬마을에서도

함께 웃어요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품에서도

젊음이 가득한 캠퍼스에서도

활력이 넘치는 한국 금융의 허브에서도

우체국 예금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